

“선운사를 불태워선 안됩니다”

김재환 경사 공적비 제막 선운사 경내입구에 세워져

1950년 12월 15일 고창 선운사가 불에 타 재만 남을 뻔했다. 육군 화랑부대가 공비를 소탕하겠다며 선운사에 소각명령을 내린 까닭이었다.

선운사 일대는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지형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처 퇴각하지 못한 북한군(빨치산)의 활동 본거지였다. 공비가 자주 출몰해 피해가 커지자 군이 선운사를 소각하기로 했던 것.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시 고창경찰서 반암출장소장으로 이 지역 치안 책임자였던 김재환(85, 부안군)은 소각명령을 내린 부대장을 간곡하게 설득해 전소 위기에 처했던 선운사를 지켰다.

선운사(주지 범만)는 11월 22일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김재환 옹의 공적을 기리는 ‘선운사 수호 공적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범만 스님은 “지역의 몇몇 사람



김재환 옹이 선운사 수호공적비를 바라보고 있다. 수호공적비는 소각 위기에 처했던 선운사를 지킨 김 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오고가며 잊혀져 가는 김재환 옹의 공적이 안타까워 선운사 동구에 흔적을 남기게 됐다”며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문화재와 선조의 얼을 생각하는 김 옹의 숭고한 뜻이 통일조국과 상생의 원동력으로 재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옹은 “공비토벌작전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나 귀중한 문화유산인 선운사 전각과 불상은 한번 불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군부대의 소각작전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군은 선운사 소각을 위해 사할건물 주변에 나무를 쌓아 놓는 등 소각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긴박했

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날 제막된 ‘선운사 수호공적비’는 선운사 경내 입구에 세워졌다. 비는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마크 위에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해 김 옹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제2황금기 즐거움을 뽐내다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2010서원한마당’ 개최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함께 단장을 하고 한해 동안 복지관에서 익힌 한국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원형, 금산사 주지)은 2010년 한 해 동안 복지관에서 활동한 어르신들의 활동, 작품 등을 선보였다. ‘나눔수록 더해지는 HAPPY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11월 18~19일 서원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그동안 복지관 프로그램들 통해 익힌 한국무용, 생활제조, 댄스, 포츠, 사물놀이 등의 발표회, 인근지역 12개 경로당의 작품 발표회, 롬비니 어린이집과 보문유치원 아동들의 어르신들을 위한 재품잔치 공연이 열렸다. 원형 스님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소자들의 새 출발 다짐

전주·광주교도소 재소자들… 봉사·수계법회

“참회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회를 한 후 어떻게 살아가는 가입니다.” 호남 지역 교도소 재소자들이 봉사활동과 수계법회를 통해 새 출발을 다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교화위원회(회장 해향)는 11월 24일 교도소 강당에서 보살계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는 수감자 82명이 참석했다. 수감자들은 각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수계문 낭독과 새로운 불명(佛名)을 받았다. 해향 스님은 법문에서 “수계의식을 통해 불자로서 계율을 지켜, 향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22일 전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금산사 복지원 보리수마을 일거리센터를 방문해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라미 봉사단은

전주교도소 수행자와 교정직원 및 교화위원으로 구성돼,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1월 가석방 예정인 재소자들은 정음 일광사 승전 스님, 불교 교정위원들과 교정직원과 함께 보리수마을을 유리창과 화장실 등 곳곳을 깔끔하게 청소했다. 한 재소자는 청소를 하면서 “청소를 하듯 마음을 닦는다. 지난날 잘못을 참회하며 건강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 교도소 장영석 소장은 “출소 전 수행자들이 노인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실내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 복귀를 준비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수행자들을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307세대 내복 전달

월주 스님 “나눔은 용기”

추운 겨울을 홀로 지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내복과 양말이 전달됐다.

국제개발기구(NGO)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 전북지부는 11월 25일 중화산동 금양정에서 후원회원들과 금산사 복지원이 마련한 2500만원 상당의 내복과 양말세트 1307세대의 홀 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금산사복지원 이사장 원행 스님, 정심원 이사장 도영 스님, 약간의 용기가 부족한 것 뿐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주 스님은 “누구나 따뜻한 마음은 있지만 선택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약간의 용기가 부족한 것 뿐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리불탑 조성한다”

여수 흥국사 진신사리 11과 친견법회 개최

여수 흥국사(주지 명선)는 11월 2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신사리 11과 친견법회를 법화경 사경독송회(회주 도림) 회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선보인 진신사리는 내중 스님이 4년 전 인도 다람살라에서 모셔온 사리로, 보관 중 증식된 15과 중 11과를 선보였다.

명선 스님은 “항후 사리를 안치할 수 있는 불탑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 흥국사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합창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

자비신행회 후원자 김순영 씨

“기부도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것”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참다운 불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기부를 하게 되잖아요.”

김순영씨는 광주에서 ‘기부오작교’로 통한다. 개인 기부에 멈추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기부행렬에 동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평소 절을 다니며 가족기도만 했던 김순영씨는 절을 좋아해 스님들을 뵈고, 공부도 했지만 주로 따라만 다니는 불자였다. 그러면서도 김순영씨는 절에 많은 불사금을 보시했다. 보시금 때문에 남편과 다툼이 있을 정도지만 그녀의 보시는 끊이지 않았다. 6년 전 불교복지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를 만나면서부터 불사의 참의미를 깨닫게 된 김씨는 율령봉사를 계기로 사찰에 후원을 시작했고 그 인연으로 불교공부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사찰의 불사금 대부분이 전각을 세우거나 단청을 칠하는 등 외형적인 부분을 가꾸는데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도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녀는 열성을 다해 자비신행회의 동참자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자녀부터 시작해서 사위까지 동참하게 했고, 주변 이웃들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권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보람 설게사인 그녀의 직업이 큰 역할을 했다. 늘 사람을 만나고 그녀는 자신의 기부에 멈추지 않고 주변사람들에게 기부를 통한 보시행의 참 의미를 알렸다. 한편으로는 기부동참자를 확보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도 사랑하게 됐다. 보람설게사라는 직업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에 동참하도록 권



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도 제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 돈을 쓰면 좋죠. 하지만 조금만 절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비신행회 실무자는 그녀가 조금씩 보낸 기부금이 3000여 만원이라고 귀띔했다. 김순영 후원자는 자비신행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식당’에 식재료를 기부, 영광재가원, 불교방송 환우돕기 캠페인 등 후원의 범위와 방법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에는 자비신행회의 ‘올해의 후원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부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주로 나이든 어른에 대해 도움을 줬다면, 앞으로는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꼭 해보고 싶어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눈에 아른 거려요. 학생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 그만큼 이 사회가 불국토가 되지 않겠어요.”

전국 사회복지단체의 가장 큰 고민인 재정 문제는 넉넉한 후원에 달려있다. 불국토가 멀리서가 아닌 사회단체에 1만원 후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녀의 믿음이 미래를 밝히는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창종 2010년 12월 12일)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창종 선포



석가어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석해주, 석능현, 박선혜화)

원로회 회장 홍섭 대종사

원로회부회장 만월대종사, 연각대종사

승 정 원 장: 원정 대종사

명예총무원장: 송산 대종사

총 무 부 장: 석해오,

총 무 국 장: 석능현

호 법 원 장: 송산대종사

호 법 부 장: 석법천,

호 법 1 국 장: 보명,

호 법 2 국 장: 보정

감 찰 원 장: 법일 대종사

감 찰 1 국 장: 법진

호 계 원 장: 무공대종사

기 획 원 장: 현암법상종사

기 획 팀 장: 김나희(덕연화)

사 정 원 장: 법안 대종사

중 앙 선 원 원 장: 지명대종사

중 앙 교 육 원 장: 무겸대종사

중 앙 교 육 부 원 장: 석월오, 석운오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장: 이창상

작 품 교 육 원 장: 조영선(무혜심)

부 원 장: 최희우(혜연심)

부 산 1 중 무 원: 석정은

부 산 2 중 무 원: 석현각

김 해 1 중 무 원: 석청해

거 제 중 무 원: 덕운대종사

경 주 중 무 원: 석보정

대 구 1 중 무 원: 해운대종사

경 남 1 중 무 원: 석보명

재 무 부 장: 석도현

교 무 부 장: 석성오

교 육 부 장: 석대명

포 교 부 장: 석혜통

문 화 부 장: 석도산

의 전 부 장: 석근홍

행 사 부 장: 석영오

홍 보 부 장: 석혜주

비 구 니 원: 석자인, 석정은, 석해안, 석해문, 석청명, 석해인, 석범오, 석수진, 석광명, 석능현, 석도현, 석지현, 석해연

입 종 안 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범음법매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사)대원불교 조계종

(사)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석정산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